

연중 제17주일

제 1 독서 : 창세 18, 20-32

제 2 독서 : 골로 2, 12-14

복 음 : 루가 11, 1-13

순정이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루가 11, 10).

강론

“용서받지 못할 자?”

박종탁 신부 / 성심학교

서부 영화 중의 한 영화 제목입니다. 주연배우 이름도 가물가물하나 그 줄거리는 한 일가족을 몰살시킨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보안관을 그린, 그리하여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내용의 영화로 기억됩니다.

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기에 잔학한 죄를 저지른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영화는 참으로 통쾌한 기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조차도 “죄가 많지 사람이 미운가?”라고 하여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들려주신 주의 기도, 생활 속에서 무수히 바치는 내용 중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조금만 달리 표현해봅시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어떠합니까? 용서를 하고 안하고는 바로 나 자신하기에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혹케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바치니 더욱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그를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말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천합니다.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느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먼저 화해와 용서를 청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가까이 가 있는 신앙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리

“교도소 실내온도는”

북한의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가 지난 주일에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왔다. 김 부총리는 도착 기자회견문에서 “나라의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행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통일의 비료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냐”는 남쪽 인사에 “수확도 하고”라는 화답. 결코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다.

지난 1972년 이래 남북문제는 무언가 풀릴 듯하다가는 도로 뒤엎기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듭했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북문제가 마치 정략적으로 이용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구석에는 “또 헛바람이겠지” 하는 불신을 지우기가 껍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통일은 우리 한민족 모두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간에 어떤 이들은 실정법의 제약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을 품으로 밀어왔다. 그러나 어떤 분의 표현처럼 이념이라는 도깨비 망령은 이를 가만 놔두지 않은 것이다.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다. 참으로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부총리의 방문으로 남북 현안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시범사업도 제의될 것이라고 한다. 다 좋다. 이번 기회에 더 바라는 하나가 있다면, 통일을 염원하다가 실정법의 제재를 받는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다. 그래서 정말로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한줄기 시원한 소낙비처럼. [甲]

순정이 산책



형법 개정안 제135조 폐지 서명운동 주교단 성명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지난 7월 13일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주교단의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한국천주교회는 전교구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 교구도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교구 내 신자들은 물론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 주교단의 성명서를 널리 알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다음은 이미 배부해드린 주교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4월 8일 입법 예고된 형법 개정안 제4장 ‘낙태의 죄’ 중에서 제135조(낙태의 허용 범위)는 제133조의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낙태 허용을 일반화할 소지가 명백하기에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입법 공고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주교회의 산하 위원회와 가톨릭 단체, 그리고 여러 종교 단체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기에 다시 한번 우려의 뜻을 모아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을 거부하는 이 법안 개정을 즉각 중지하기를 촉구합니다.

형법 개정안 제133조에서 임신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형법 제269조에서는 1만원)에 처함으로써 낙태법을 강화한 듯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135조 ‘낙태의 허용 범위’를 신설하였고, 산모가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윤리적인 경우에는 20주 이내, 기형아 등의 우생학적 적응의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임신한 여자의 청탁이나 수락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본질적으로는 유신 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모자 보건법의 그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과 낙태에 대한 정부측의 묵인과 방조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입법 예고된 형법 제 135조 ‘낙태의 허용 범위’는 임신중인 여자가 원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낙태할 수 있는 ‘낙태의 정당화’ 및 사실상 낙태죄 폐지로 너무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편 있는 임신 가능한 15-49세 부인 중에서 1회 이상 낙태한 사람은 1964년 7%에서 매년 증가, 1991년에는 54%로 나타나고 있고, 미혼 여성의 인공 유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유산이 전체 유산의 32.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공 유산의 숫자가 적어도 정상 출산의 2배가 넘는 150만여 건에 이르러 인구비로 비교하여 볼 때 미국의 6배에 해당하여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그 존엄한 생명권을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과 관련되지 않는 병이나 또는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하여 위독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나 수술로 태아의 희생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긴급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태아를 고의로 죽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생학적 유전학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낙태는 모든 법의 원천인 자연법과 하느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때문에 어떤 실정법으로도 이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또 용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모자 보건법과 개정안 제135조 낙태 허용 범위는 자연법과 하느님의 법을 거스리는 악법입니다. 그러한 악법은 지켜도 안되며, 더 나아가 어떤 형태로도 그러한 법을 만드는 일이나 옹호하고 선전하고 지지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협력해서도 안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께 빛과 용기를 청하면서 인명 존중의 새문화를 창조해나갈 결심을 새롭게 하며,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입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다같이 참여합니다. 이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교들은 뜻을 합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1992년 7월 13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한 라 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자갈 텐트 세트 염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해리(살로메)
판통로 전주 진신전화국 앞
☎ 84-2941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전주 오거리 천 보 당

안경, 콘택트렌즈, 금·은·보석·시계
손한성(바오로)·정정남(가타리나)
교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자갈 텐트 세트 분할판매

각종 등산 장비 일절
정시택(아오스당), 김미향(세실리아)
군산 시청 옆(군산시 영화동 20-3)
☎ (0654) 445-6090
445-6091

5분교리 13

“보호자, 변호자, 협조자이신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자. “협조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요한 14.25).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으나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실 희망과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셨고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한 하나님이며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요한 1.33).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이 됨으로써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야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할 수 없고 남에게 전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성령은 교회가 태동하던 때부터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성화시키시며 일치시키는 주역이 되어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의 혼이라고 한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되는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께 기도하자.

“오소서 성신이어/ 없는 이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이/ 마음들의 빛이어,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흐뭇한 안식이어/ 울음에 위안이어, 지복의 빛이시여/ 당신의 신자들의 마음속 채우소서/ 당신의 빛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죄 아닌 것 없나니, 더러운 것 씻으소서/ 마른 것 물 주소서, 병든 것 낫우소서/ 당신을 믿는 자들, 신자에게 일곱가지 은혜를 내려주소서/ 공로를 쌓는 덕을, 구원의 끝맺음을/ 무궁한 복 주소서”(성령송가).

* 참고 자료 : 사도행전(성서), 성령(교황님 회칙)

교 구 소 식

※ 교구청 전직원 하기휴가(8월3일-8일) : 각 본당은 교구청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교구 법원 : 7월27일(월) 오전10시 교구청.
2.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 경시대회 : 8월1일-2일 각 본당에서 실시.
3. 변산해수욕장 야외미사 : 7월19일-8월9일 매주일 오후4시 노천무대.
4. 전화번호 신설 : 서신동 성당 신용협동조합 253-1575.
5. 성도의 기사회 : 8월1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6.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7월31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김영수 신부·강용웅 회장.
7. 이명재 신부 주소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2-1 공군 군중 사제관 (0584)52-4452.

※ 축! 영명 : 31일(성이나시오) 성태수, 안철문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 8월2일 오후2시 성바오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8월2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세탁

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세탁하는 시간을 줄이고 세탁이 끝날 때까지 물을 계속 틀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마지막 헹굼물은 받았다가 집안 청소할 때 이용합시다.

공예가구
아 씨 방
 (이리 대리점)
 류 경 선(요 한)
 전 춘 자(수산나)
 이리시 신동 806-7
 ☎ 858-0196

금은, 보석, 시계, 목주
금보장 금방
 장 금 태(프린치스코)
 채 현 옥(마 리 아)
 전주 남문 옆
 ☎ (점) 88-4989
 (자) 88-4988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 성심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 대건요업
 (0658)546-7080
 본 사 :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요십이 (990) 김병오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이)
 동부시장은 · 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주단 · 침구 · 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 (요 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하늘을 지켜나가는 무독성 무공해 천연세제 ‘천연샘’과 ‘샘이랑’을 소중한 이웃과 함께 씁시다.
 • 천연샘(주방세제)
 • 샘이랑 (세안 · 세발 · 전신물비누)
 • 아기샘(유아용 비누)
 • 맑은샘(세탁용 물비누)
 • 문의 및 보급처
 ☎ 86-2050
 베베012-682-6543
 전 경 자(베로니카)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확정된 교회올어를 사용함이다.**

1. 사목회 임원개편: 부회장-박인식(아우구스티노), 홍보부장-이창남(스테파노) 수고하시겠습니다.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29일, 26일은 오후1시부터, 27~29일 오전8시30분 시작, 물놀이: 30~31일(구이안덕분교에서) 3. 청년연합단합대회: 8월1일~2일, 참가비: 5,000원, 신청-29일까지 사무실로. 4. 성령 기도회: 서기-윤경자(베로니카) 5. 28일은 여름신앙학교 관계로 어머니미사가 없음: 새벽미사 6. 모임: 30일-빈첸시오(오전9시30분) 울뜨레아(8월2일 공식미사 후) 7. 제대회: 28일 10시30분. 8. 금주침소: 인후11, 동진1반 차주침소: 동진2, 동진3반.

□ 지난주 봉헌금: 806,450원 □ 교무금: 1,021,000원
□ 2차헌금: 346,54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예비자를 인도함시다: 수녀님반-주일 오전9시, 신부님반-목요일 저녁미사 후(8월2일 시작) 예비자 입고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와 중·고생 하계 수련회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회합: ①제대회(30일 오전10:30분) ②방자봉성제(31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③대건회(8월2일 공식미사 후) ④사목회(8월2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황만금, 독서-박노환씨 부부, 봉헌-오준원씨 가족, 차주전례: 조옥래, 독서-김효승씨 부부, 봉헌-이태영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98,560원 □ 교무금: 1,204,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교리교사를 위한 2차헌금: 오늘 모든 미사 중.**
1. 첫 영성체 어린이 부모모임: 오늘 오후2시. 2. 사목회: 1일(토) 저녁미사 후. 3. 축! 푸르실로: 남성42차,30일~8월2일,신부님, 김영신(요셉) 형제님, 많은기도바랍니다. 4. 여름성경학교: 27일(월)~29일(수) 많은 관심바랍니다. 5. 첫 영성체 교리: 8월3일(월)~8월8일(토)까지 6.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신입-672만원,누계-3,324만원. 7.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8.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9. 성모회 임원개편: 회장-이석남,부회장-이희순,한영래,회계-송정자,서기-오귀남. 10. 성서읽기: II 사무 1장~12장. 11. 청소년사: 구세주의 모친. 12. 금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박시도 ②김갑자, 봉헌-양재철,김대권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유순천 ②김순애, 봉헌-이기봉,이준희씨 부부. 13. 울뜨레아: 2일 후6:30. □ 지난주 봉헌금: 275,720원 □ 교무금: 18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연중제17주일!**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일(8월2일)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8월2일) 오후2시 ③사목회-다음주(8월5일) 수요일 오후 8시30분 ④자모회-다음주 수요일(8월5일) 오전10시30분
2. 알릴: ①사무장 하기휴가-7월28일(화)~8월1일(토) 오전까지 ※ (사무장휴가기간 동안 사무실휴무) ②성심회임원개편: 회장-오효지(요세파나)자매님,부회장-전해님(테레사)자매님,서기-박복자(아가다)자매님,회계-김옥자(크리스티나)자매님. 앞으로 수고 많이시겠습니까. 전 성심회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③교무금-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금인데도 지금까지 신청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나다.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이 오직 정성껏 봉헌해주십시오(성당살림이 어렵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807,050원 □ 교무금: 67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초막 공동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름 신앙학교에 애쓰신(교사, 어린이)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성서교사 개강 전까지 수요일=새벽미사.
2. 교리교사, 어린이 북사단 야외수련회: 7월30일~8월1일까지(물심양면 협조바랍니다)
3. 8월1일(토요일) 어린이 미사: 없습니다.
4. 청소년사: 5구역 5반, 1구역 1반.

□ 지난주 봉헌금: 579,320원 □ 교무금: 98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민안나 수녀님 영명을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②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③성마리아 꼬미시움(오후2시) ④청년연합회 월례회 및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저녁미사 후)
2.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27일~8월1일까지, 오전8시~12시.
3. 중·고등부 하계교리: 27일~30일(후3시) 장소: 소강당.
4. 청년연합회 하계수련회: 8월1일~2일.
5. 성가정회: 8월1일 오전11시.
6. 치주: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첫 영성체 준비자 부모님 모임(공식미사 후소강당) ③재승골라라형제회(오후1시30분)
7. 감사한다: 에이콘 설치헌금 일백만원(정유주님,김형진-사무엘)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1. 청소년 여름 신앙학교 후원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2. 초등부 어린이 야영: 27일~28일, 유치부~2학년 당일도착.
3. 사목회 임원 야유회: 28일 후6시~29일, 부장,차장 참석요.
4. 어머니 야외미사: 29일 오전9시30분 천당분교, 전입신자 환영.
5. 29일 어머니야미사 관계로 레지오는 변경 바랍니다.
6. 남성 42차 푸르실로 감습회: 함문권, 박종림, 황성주 30일.
7. 유아세례: 1일 후3시, 신청서 사무실에 미리 접수 바랍니다.
8. 초등부 교리 경시대회: 1일 후2시, 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9. 자선날: 29일 어머니미사, 아버지미사, 이웃을 위해 정성 올...
10. 회의: 구역 반회장 연수, 부녀회-29일, 임실 천당분교에서. 꾸리아-2일 후2시30분(1인 1단체 가입을 권합니다)
11. 세례대장 기재 누락자는 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28,430원 □ 교무금: 87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청년회: 오늘 미사 후.
2. 중·고생 산간학교: 27일(월)~29일(수) 장소-덕유산. 오전9시 성당집결(차량대절)
3.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8시.
4. 반당 주일학교운영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금주전례: 정 걸, 독서·봉헌: 정복순, 은종희
차주전례: 최경순, 독서·봉헌: 육연숙, 강희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실

※ **연중 제17주일**

- ※ **감사!** 여름신앙학교에 협조해 주신 자모회, 성모회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사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1. 모임: ①예령회-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 ②꾸리아-29일(수) 오전10시 ③사목회지분과-오늘9:30 ④복사단물놀이-27일(월)~28일(화) 전인모정리. ⑤전배해설단-오늘저녁미사 후. ⑥성모기사회-8월1일(토) 오전10시. ⑦안나회-8월2일(일) 12시(교육관)
 2. 미사안내: 금주-평화의 모후, 순명의 모후, 차주-하늘의 문, 셋빛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43,245원 □ 교무금: 1,63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익 도

1. 여름성경학교와 중고생 수련회에 협조해 주신 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2. 모임안내: ①반석회-공식미사 후. ②요셉회-공식미사 후. ③성전신축사업위원회-30(목) 저녁8시. ④사목회-31(금) 저녁8시. 신축헌금 봉헌액-300,000원.
-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순효성, ②김은숙
봉헌-안내-최자성 부부, 이태영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김영민, ②명명회
봉헌-안내-고영표 부부, 송대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66,560원 □ 교무금: 2,407,000원